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/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 http://www.incheon.go.kr

'14년 8월 2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김동호 과장(043-870-5480), 홍성만 연구사(043-870-5484)
인천광역시 경제수도추진본부 기업지원과 이주호 과장(032-440-5021), 김흥수사무관(032-440-4286)

산업의 전국체전,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인천에서 개막

- 지역대회를 통과한 298개 분임조, 8월 25일부터 금·은·동메달 경쟁 -

□ '제40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'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8. 25.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.

○ 올해로 40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기업 현장의 품질개선 우수사례 발표와 심사를 통해 금·은·동메달을 선정하는 산업체의 전국체전이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298개 팀 4,000여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했다.

○ 본 대회의 지역예선은 지난 5. 23. 서울특별시 품질경영대회를 시작으로 한 달간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최했다.

○ 품질분임조는 현재 9,283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약5만 6천 여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활동인원은 56만 명에 달하고 매년 10만 건의 현장품질문제를 개선하여 2.7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.

□ 8. 26.(화)부터 상생협력, 기계금속 등 13개 부문으로 나눠 8. 29.(금)까지 5개 장소에서 동시 진행되는 경진대회는 국가품질망(http://www.liveto.com/KNQA/201408/index.html)을 통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한다.

○ 이번 전국대회에 참가한 분임조는 입상순위에 따라 오는 11.20.(목) 예정된 「국가품질경영대회」에서 금·은·동메달(총 298개)을 수여한다.

□ 한편, 유명인사가 품질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주는 품질콘서트, 공연,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한다.

○ 개막일인 25일에는 "2014 QUALITY&(품질콘서트)"를 개최하여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

○ 필룩스 노시청 회장, 김용택 시인이 '품질'이라는 키워드를 자신의 인생경험에 녹여 생생한 품질이야기를 풀어내어 큰 호응을 받았다.

<참고자료1>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요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홍성만 연구사(☎ 043-870-5484),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김흥수 사무관 (☎ 032-440-42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**

□ 개요

○ 기업 현장 개선에 앞장서는 품질분임조의 경진과 근로자의 품질 향상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서 매년 시도별 순환 개최

* 00년부터 품질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6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순차 개최: 울산('12) → 전주('13) → 인천('14) → 충남('15 예정)

< 품질분임조 제도 >

▪ **(개념)** 직장 내의 작업 및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실행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소집단

* 공업표준화법 제정('61.9)으로 KS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해 시작한 '제조현장 품질관리 운동'이 그 시효

▪ **(현황)** '14.2월 현재 9,283개 사업장에서 56,000여개 동아리(회원 수 539,636명)가 결성되어 활동

□ 우수품질분임조 선정

○ **(예선)** 17개 시·도 단위 609개 분임조를 대상으로 예선(5-7월)을 실시하여 298개 분임조 선발

○ **(본선)** 예선을 통과한 분임조는 '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(8월)'에 참가하여 금·은·동 메달 경쟁

* 「국가품질경영대회」에서 대통령명의 메달 수여

□ 기대효과

○ 다양한 개선활동을 통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, 산업현장의 신바람 문화 확산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

* 매년 10만건의 현장문제를 해결하고, 개선을 통해 약 2.7조원의 경제적효과 창출('13)